

디스플레이 '양대산맥'

삼성, 뉴욕서 '8K 대세' 각인



삼성전자

8K디스플레이 서밋 행사 개최
콘텐츠 생태계·심화 기술 공유
참가자, 삼성 주력기술에 관심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8K 기술에 매료됐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8K 디스플레이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K 기술과 시장 현황, 콘텐츠 생태계와 심화 기술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미국 리서치 기관 '인사이트 미디어'가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HDR10+와 5G, AI 업스케일링 등 8K 관련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기술로, 삼성전자의 8K 생태계 주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8K 협의체 경과와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지난 4월 삼성전자와 파나소닉, TCL과 하이센스 등 TV 제조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향후 8K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생태계 확대에 나



삼성전자는 8K 디스플레이 서밋을 열고 생태계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

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미주법인 디스플레이 담당 소녀 첸(Sonia Chen)은 "5G가 상용화되고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고화질 방송과 영상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8K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동영상으로 검색하고 소통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8K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효건 부사장은 "8K 초고화질이 보여주는 최고의 시청 경험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8K TV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8K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참가자들.

/삼성전자



투명한 올레드 사이니지.

/LG전자

LG, 마이크로LED로 출사표



美 올랜도 '인포콤 2019'에 참가
전세계 1000여 기업 기술력 겨뤄

이니지 등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제품은 마이크로LED 사이니지다. $50\mu m$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소형 LED 소자를 정밀하게 배열해 만들었다. 시야각이 넓고 섬세하면서 베젤이 없다.

LG전자가 북미에서 다시 한 번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뽐낸다. 브랜드 첫 마이크로 LED 제품도 내놨다.

LG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인포콤 2019'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인포콤은 북미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다. 전세계 10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LG전자는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투명올레드 사이니지 ▲오픈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 ▲파인피치 LED 사이니지 ▲ 130인치 LED 사

/김재웅 기자

프리미엄폰 능가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트리플 카메라에 대용량 배터리는 '기본'

삼성전자 '갤럭시 A50'

베젤 최소화·온스크린 지문인식 지원

LG전자 'X6'

6.26인치 화면·64GB 저장공간 갖춰

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한다. 온스크린 지문 인식은 눈에 보이는 지문 인식 버튼 대신 화면에 내장한 기술이다. 또한 후면에 123도의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2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변신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으며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6인치 이상의 대화면은 기본에 3개 이상의 카메라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스마트폰을 속속 출시하며 중저가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과 LG 모두 오는 14일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 스마트폰은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4만 9800원의 '갤럭시 A30'을 출시하고 지난 1월 59만 9500원의 '갤럭시 A9 프로'를 내놓는 등 꾸준히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춰나

가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도 기본 3개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갤럭시 A9'를 59만 9500원에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갤럭시 S' 시리즈로, 중저가 스마트폰은 '갤럭시 A' 시리즈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14일 출시를 앞둔 '갤럭시 A50(아래 사진)'은 갤럭시 A50는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6.4인치의 인피니티-U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A 시리즈 최초로 온

LG전자는 5G 스마트폰은 'V' 시리즈, 4G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G' 시리즈로 이원화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은 'X'와 'Q' 시리즈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14일 선보이는 'LG X6(위 사진)'

는 LG전자의 중저가 라인에선 처음으로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16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 화각 120도를 지원하는 초광각 카메라, 사진의 깊이를 추출해 아웃포커스를 구현해주는 심도 카메라를 갖췄으며, 출고가는 34만 9800원이다.

또한 6.26인치의 대화면과 함께 중앙 상단 카메라 부위를 물방울 모양으로 감싼 '뉴 세컨드 스크린'으로 화면을 제외한 베젤을 최소화시켰다. 64GB의 대용량 저장 공간과 3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다.

LG전자 역시 지난 4월 29만 7000원의 'LG X4'를 출시하고 지난해 8월 53만 9천원의 'LG Q8'을 출시하는 등 중저가 라인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통해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기아차 'K7 프리미어'.

차세대 엔진 탑재 'K7 프리미어'
3년만에 페이스 리프트로 '컴백'

전국 영업점서 사전계약 돌입

기아자동차의 'K7 프리미어'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로 돌아왔다.

기아차는 12일 서울 강남구 비트(BEAT)360에서 사진영상 발표회를 열고 이달 중 출시 예정인 'K7 프리미어'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K7 프리미어는 차세대 엔진과 최첨단 기술, 담대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이다.

K7 프리미어는 2016년 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K7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2.5 휘발유, 3.0 휘발유, 2.4 하이브리드, 2.2 경유, 3.0 LPi 등 다섯 개 엔진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3102만~4045만원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3.0 가솔린 모델은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을 적용했다. 고출력 전동 모터가 랙에 장착돼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할 때 조향값을 인지해 즉각적으로 구동시켜준다. 덕분에 기존 대비 조향 응답성이 강화됐다.

3.0 가솔린 모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고속 영역에서는 MPI 인젝터를 사용하며 운전 조건에 따라 최적의 연료를 분사한다.

/양성운 기자 ysw@